



‘인증샷 성지’
백화점
연말준비 돌입
L1



Life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개발
입지 다진다
L2



코딩으로 미래를, 기술로 안전을... 디지털로 온기 더하다



CJ올리브네트웍스

디지털 전환(DX) 시대, 본업과 깊게 연관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펼치는 기업이 있다. IT 서비스 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자사의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과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사회공헌 영역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며 ‘테크 포 굿(Tech for Good)’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10년째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CJ SW창의캠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ESG 활동 중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임직원 참여형 AI·SW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코딩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IT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술 기부’ 현장에서 아이들은 미래를 꿈꿨다.

올해는 경기도교육청, 한국창의과학재단, 서정대학교와 손잡고 ‘찾아가는 AI·SW 창의캠프’를 진행했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올 9월 한 달간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에서 열린 프로그램에는 고양시 20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네오싱카 교구를 이용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태블릿과 교구를 연결해 블록코딩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은 직접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선보였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교육 현장에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걸스 캔 두 IT

CJ올리브네트웍스는 여학생들의 IT 분야 진출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걸스 캔 두 IT(Girls can do IT)’는 CJ-UNESCO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한 여중생 대상 해커톤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CJ나눔재단 지원을 받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소속 여중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6월 한 달 동안 16시간에 걸쳐 레고를 활용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융합 교육을 받았다. 이어 올 7월 5일 CJ 인재원에서 열린 해커톤 결선에서 ESG를 주제로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17개 항목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IT 기술을 접목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1 지난 7월 5일 개최한 걸스 캔 두 IT 해커톤에서 참가 학생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회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2 CJ올리브네트웍스 봉사단과 용산소방서 소방관이 함께 ‘보이는 소화기’를 점검하고 있다.

3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 봉사단이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2015년부터 AI·SW 교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학생에 코딩교육 기회 제공
여학생 IT 진출 독려하는 해커톤 운영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체계적 교육

휠체어 경사로·화장실 등 정보 수집
이동약자 위한 생활편의 지도 구축
QR코드 활용 소화기 관리·점검 활동
노년층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실천도

트웍스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1등의 영예를 안은 은평 갈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야생동물 자동 감지 장치, 컬러센서 기반 이끼 처리기, 미세먼지 농도 감지 풍차 제어 장치 등을 선보였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해커톤 결선 당일에는 초등 여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SW 창의캠프도 개최됐다. 레고 블록 STEAM 교육과 네오싱카 교구를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 체험 활동이 이뤄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걸스 캔 두 IT는 UN에서 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 17개 주제를 배우고, IT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기반의 커리큘럼이 특징”이라며 “최신 기술 트렌드가 반영된 교재와 현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현장감 높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해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중”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IT 역량을 기반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양질의 교육’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사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보유한 IT 전문성과 핵심 역량

을 바탕으로 주로 지역 간 IT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여해왔다”고 부연했다.

◆휠체어 경로부터 소화기 점검까지...IT 기술로 구현하는 안전 사회

CJ올리브네트웍스의 ESG 활동은 교육에만 머물지 않는다. I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행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봉사 활동이 대표적이다. 임직원들이 분사, 분당사옥, 송도 데이터센터 인근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휠체어 이용 가능 경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가공 과정을 거쳐 장애인 이동 편의 지도 앱에 반영된다.

이동 약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향상이 목표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IT 기업의 강점인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용산소방서와 협력한 ‘보이는 소화기’ 정기 점검 활동도 눈길을 끈다. 보이는 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된 공용 소화기로, 현재 서울에 4만2979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483대가 용산구에 있다.

임직원들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소화기의 과소 여부와 상태를 점검한다. 소화기에 부착된 QR(정보무늬) 코드를 스캔해 관리 번호, 점검 결과, 이상 유무를 입력하면 소방서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와 보수를 실시한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개선 제안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노년층 디지털 교육으로 지원 대상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는 노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IT 기업의 핵심 역량인 기술력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술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아동 청소년과 지역 사회를 타깃으로 한 나눔봉사(사회공헌) 활동을 중점 운영하고 있다”면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SW창의캠프 등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스탠딩 투게더’ 등 다양한 활동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연말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실제 관심도 높은 사회 문제를 정해 이와 관련된 나눔봉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손흥민 1골1도움’ LAFC, 오스틴 꺾고 MLS P O 8강 진출
▲부상 뒤흔쳐낸 조규성, 홍명보호 발탁...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
/사진 뉴시스

▲다저스 김혜성, 우승 트로피 안고 미소...4일 카 퍼레이드 참가
▲UFC 2연승 거둔 고석현 “더 열심히 훈련하며 성장할 것”

▲김하성, MLB FA 랭킹 34위...美 매체 “안정적인 수비에 평균 수준 타격력”
▲‘트럼프 선물 금관’ 실물 공개에 관람 인파...회 차당 150명 제한